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 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뤄진다.
시냇물이 마침내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3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16일)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금강산 부처님께 한반도 평화 발원을… 한국 7대 종교 대표자들이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북한 금강산 신계사를 참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6 ·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 일대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다. 400여 명의 남북 대표단은 13일 방북 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2007년 남북이 함께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삭발염의하고 홍가사를 수한 북한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대웅전서 예불하는 모습. 〈관련기사 A3면〉 글=김지원 기자, 사진제공=새해맞이연대모임추진위원회

3월 1일 전국 사찰엔 태극기 물결 '넘실'

불교 등 종교계,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3.1절 동시 타종식 비롯해
범종교 평화기도회 예정돼
불교계 학술세미나 · 전시 등
역사 재조명 사업 다채로워
지역 사찰 중심 만세 재현도

신성민 · 김지원 기자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에 뜻을 모았다. 불교계는 종단협 소속 사찰 1만5000여 곳과 함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타종식 및 전국 기념법회 등을 거행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는 2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서 '종교지도자 초청 3.1운동 100주년 기념 주요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행사에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수장단은 범종교 연합행사와 각 종단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불교계는 타종과 함께 전국 사찰들이 일제히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서울 조계사 등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1만5500여 사찰은 3월 1일 오전부터 법회를 봉행한다. 불자들은 희생된 선열들을 기리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데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3.1절 당일에는 조계사 법당서 북측에 전달할 '통일염원 삼만 일천 염주 만들기'와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만해 한용운 스님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조계사 경내에 나라사랑 체험마당을 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스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불교계 항일독립운동 및 통일운동과 관련한 사진전과 도서전은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와 조계사 앞마당서 일주일간 열린다. 백용성 스님 등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불교계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잊혀진 백년의 진실: 태극기 사용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세미나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종단협과 불교평론은 공동으로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3월 1일 낮 12시에 종교계,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타종 및 종교의식이 예정돼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전체 종교시설들은 3분간 타종하며 종교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현재 KCRP 측은 3.1운동100년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와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찰들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역 사찰들의 행사는 잘못 알려지거나 잊힌 역사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가 만세운동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부산의 최초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現 동래여고)의 좌천동 거리 만세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산불교계는 당시 범어사 명정학교 학생이자 스님이었던 김법린 선생이 중심이 돼 동래장터에서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를 부른 3월 7일이 부산 최초의 만세운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범어사신도회와 금정중학교(前 명정학교)는 3월 7일 기념행사를 봉행하여 그 의미를 되새긴다. 또 100년 전 범어사와 명정학교 지방학림의 모습 등을 담은 특별사진전을 2월 27일~3월 3일 범어사역 역사서 개최한다.

한편, 범어사성보박물관과 부산근대역사관은 3 · 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기획으로 '저항×2-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전을 3월 1일부터 100일간 열어 관련 유품과 사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불교계도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919년 대구에서 열렸던 3 · 8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3월 1일 대구시의 주최로 열리는 재현행사에는 보현사와 달성공원, 청라언덕에서 시작해 국채보상기념공원까지 펼쳐지는 거리행진과 기념식이 열린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윤성이 교수 선출

8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건학이념 통해 소통 · 화합"



동국대 제19대 총장에 윤성이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2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17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윤성이 · 이은기(서강대) · 조의연 교수 등 3명의 후보가 올라왔으며, 이사진들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윤성이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성이 교수는 3월 1일자로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선출 직후 윤성이 교수는 공식적으로 소감을 밝혔다. 윤성이 교수는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떨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건학이념인 지혜 · 자비 · 정진을 바탕해 부처님 광명이 동국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학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저의 강점인 소통과 화합의 능력을 발휘해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선거에 참여한 10명의 선후배 후보들과도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도 화합을 당부했다. 자광 스님은 "이번 선거에는 10명의 후보자들이 나와 경쟁했다"면서 "정견발표와 토론을 살펴보니 좋은 공약들이 있었다. 각 후보들의 장점을 통합해서 끌어안아 학교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된 윤성이 교수는 동국대에서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사를, 일본 쓰쿠바대에서 환경과학과 환경과학석사를, 도쿄대 지구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 부임 이래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왔다.

윤성이 교수는 '배려 · 존중 · 화합 ·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학교 운영의 제1 순위로 꼽는다. 그는 후보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흑자경영으로 전환이 아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며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 중심의 경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윤성이 교수는 현재에도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자랑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지리산 칠불사와 고성 무위사가 재적사찰이며, 법명은 도인(度仁)이다. 2009년 6월부터 2년간 동국대학 불자교수회 총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불자 교수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정각원과 함께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소임을 보면서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스님 "일념삼매 혼신의 노력을"

무술년 동안거 해제… 수좌 2033명 만행 나서

지난겨울 석 달간 선방에서 화두를 참구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용맹정진한 2000여 수좌들이 산문을 나섰다.

이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월 19일 무술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일념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애착과 일체분별, 시비장단을 놓아버리고 가나 앉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사위의 가운데 간절한 화두의심이 지속돼 모든 습기와 반연은 재가 돼야 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대중에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을지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무술년 동안거 선사 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100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6 · 비구니선원36)에서 총 2033명(총림300 · 비구1147 · 비구686)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방장 해제법어 A5〉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부설 |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2019년도 1학기 강의 안내

탄허강숙(呑虛講塾)은 탄허 큰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불교 한문 교육기관입니다. 2019년 1학기(3월-6월) 탄허강숙 강의는 [대승기신론](성본스님), [선문촬요](이상하 교수), [능엄경](선암스님) [선문염송](문광스님)을 강의합니다.

공부, 학문을 하지 않으면 무지해 지고 허영과 사치, 교만, 출세 등 천박한 가치관, 인생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노력은 불사(不死)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탄허큰스님께서는 "법당 100채 짓는 것보다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강숙은 지성(知性)과 인격을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1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일 시 • 2019년 3월 4일(월) ~ 6월 27일(목)
• 저녁 7시 ~ 9시

방 식 원전 중심 강의 (초심자도 누구나 수강 가능)

장 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 지하철 ❶호선 종각역, ❸호선 안국역, ❺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문 의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2019년 1학기 개설 강좌 ❖ 2019년도 1,2학기 통산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요일	강좌 및 원전명	강사	강사소개
월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성 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역주)〉 등
화	선문촬요 (禪門撮要)	이상하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수	능엄경 (楞嚴經)	선 암 스님	능엄학림 졸업(월운스님 전강제자).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 박사. 불교한문학 박사(한문불전 번역 전공).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강사
목	선문염송 (禪門拈頌)	문 광 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박사. (현)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지원서 제출 및 등록

접수방법 • 이메일 : tanheogangsuk@naver.com
• 전화 :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수강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윤재승(예금주)
• 수강료 송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 교재는 개강일 배포